

김혜성 빅리그 계약 땀... KBO서 직행 '7호'

국내 프로야구선수 MLB 도전사

2012년 11월까지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진출한 선수는 최향남, 단 한 명뿐이었다.

최향남은 롯데 자이언츠 소속이던 2009년 MLB 진출을 추진했고, '101달러'라는 상징적인 금액으로 입찰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다.

한국프로야구 KBO리그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간, 최초 사례였다.

류현진(현 한화 이글스)은 2012년 11월, 역대 MLB 포스팅 금액 4위에 해당하는 2573만7737달러33센트의 거액을 제시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협상을 시작해 마감 시간을 앞두고 계약서에 사인했다.

KBO리그에서 MLB로 직행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또 다른 코리안 빅리거 탄생이 임박했다. MLB 사무국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4일 정오(한국시간 5일 오전 2시)에 김혜성의 포스팅을 공시했다.

김혜성은 미국 동부시간 5일 오전 8시(한국시간 5일 오후 10시)부터 MLB 30개 구단과 한 달 동안 협상할 수 있다.

공수 주에 모두 능한 김혜성이 MLB 구단과 계약하면, 역대 9번째로 포스팅을 통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선수로 기록된다. 빅리그 보장 계약을 하면 7번째로 'KBO

최향남 포스팅시스템 1호 기록

류현진은 2573만 달러에 첫 직행

이상훈, 민주당 거처 보스턴행

에서 MLB로 직행한 사례를 만든다.

류현진 이전, MLB 포스팅 시스템은 한국 프로야구에 상치만 남았다.

1998년 3월 국내 최초로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미국 진출을 추진한 이상훈 MLB스 포츠해설위원은 당시 원소속구단 LG 트윈스에 2년 임대료 250만 달러를 제시했던 보스턴 레드삭스가 정작 포스팅 후 60만 달러로 액수를 낮추자 미국 진출의 꿈을 접었다. 이상훈 위원은 일본 주니치 드래건스를 거친 뒤, 2000년 보스턴에 입단했다.

2002년 12월에는 삼성 라이온즈의 임창용과 두산 베어스 진필중이 동시에 포스팅을 신청했다. 임창용은 65만 달러, 진필중은 2만5000달러를 제시받는 데 그쳤다. 삼성과 두산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둘은 국내에 잔류했다.

류현진이 물꼬를 튼 뒤에 포스팅을 통한 미국 진출이 늘었다.

MLB 첫 시즌을 기준으로 2013년 류현진이 다저스와 계약했고, 2015년 강정호는 피츠버그 파이리츠, 2016년 박병호는 미네소타 트윈스에 입단했다.

박병호까지는 최고 입찰액을 써낸 MLB

구단이 단독 협상권을 얻는 형태였다.

류현진은 2573만7737.33달러, 당시 환율로 280억 원을 한화에 안겼다.

이제는 '빅리거 사관학교'의 입지를 굳힌 키움 히어로즈는 강정호의 이적료 500만 2015달러, 박병호의 이적료 1285만 달러를 연이어 받았다.

2018년 한국과 미국의 포스팅 시스템이 개정되면서 구단이 받을 수 있는 이적료가 줄었다. 선수에게 불리한 형태였던 '단독 협상권'이 사라지고, MLB 30개 구단 모두와 협상할 수 있게 됐다.

이적료는 계약 규모가 2500만 달러 이하면 총금액의 20%다. 2500만~5000만 달러 구간이면, 이적료는 2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의 17.5%와 이 구간 기준점인 2500만 달러의 20%인 500만 달러를 합친 액수가 된다.

계약 규모 5000만 달러를 넘으면 이적료는 5000만 달러 초과액의 15%와 5000만 달러를 다시 두 구간으로 나눠 첫 2500만 달러의 20%인 500만 달러, 나머지 2500만 달러의 17.5%인 437만5000달러 등 세 가지를 다 더한 액수다.

2020년 김광현은 세인트루이스와 2년 보장액 800만 달러에 계약했다. 원소속팀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는 이적료 160만 달러를 받았다.

2021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4년 2천 800만 달러의 보장 계약을 한 김혜성은 키

움에 이적료로 552만5000달러를 안겼다. 포스팅 규정 개정 후 가장 큰 규모로 계약한 코리안 빅리거는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다.

이정후는 지난해 12월 6년 1억1300만달러에 도장을 찍었다. 2027년까지 4년간 샌프란시스코에서 뛰고 나서 옵트아웃(잔여 계약 파기 후 자유계약선수 권리 행사)을 할 수 있는 조건이다.

옵트아웃 권리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2027년까지 4년간 보장 액수는 7200만 달러이며 옵트아웃을 택하지 않았을 때 전체 보장 액수가 1억1300만 달러다.

이정후가 계약 기간 6년을 채우면 샌프란시스코는 1882만5000달러를 이적료로 키움에 지급한다. 이정후가 옵트아웃을 하면 키움에 받을 이적료는 1267만5000달러로 줄어든다. 아직 빅리그 무대에 서지 못한 고우석(마이애미 말린스)이 KBO 원소속구단 LG 트윈스에 안길 수 있는 이적료는 87만5000달러~161만 달러다.

고우석은 2년 보장 450만 달러에 3년 최대 940만 달러에 샌디에이고와 계약했고, 시즌 중에 마이애미 말린스로 이적했다. MLB트레이드루머닷컴은 김혜성의 계약 규모를 '3년 2400만 달러'로 예상했다. 만약 김혜성이 사인하면, 키움은 480만 달러를 이적료로 받는다. 스키아데일리·연합뉴스



최향남(롯데) 101달러 세인트루이스(2010년)로이적

류현진(한화) 2573만7737.33달러 다저스(2013년)로이적

강정호(넥센) 500만2015달러 피츠버그(2015년)로이적

키움, 투수 장필준 영입 1년간 연봉 4000만 원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다가 이번 시즌이 끝나고 방출된 오른손 투수 장필준(36)을 영입했다고 5일 발표했다.

장필준은 이날 오전 서울 고척 스카이돔 구장 사무실을 찾아 연봉 4000만 원에 내년 시즌 계약을 맺었다.

장필준은 2008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계약했으나 빅리그 무대는 밟지 못하고 미국 독립 리그와 호주 리그에서 뛰었다.

이후 2015 KBO리그 신인드래프트에서 2차 1라운드 전체 9순위로 삼성 지명을 받아 한국에 복귀했다.

장필준은 2017년 2세이브, 2018년과 2019년은 두 자릿수 홀드를 기록하며 삼성 뒷문을 지켰다.

그러나 최근 2년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올해는 시즌 초반에 1경기에 출전해 1/3이닝 5실점으로 무너진 뒤 2군에 내려가 한 번도 1군에 올라오지 못하고 방출됐다.

장필준의 1군 통산 성적은 10시즌 345경기 399%이닝 17승 29패 47홀드 42세이브 평균자책점 5.29다.

키움 구단은 "장필준 영입으로 불펜이 두꺼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양한 경험으로 젊은 투수를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필준은 "결혼이 얼마 안 남았는데 키움 구단이 큰 선물을 줬다. 출전수범하는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재기를 다짐했다.



키움 유니폼을 입은 장필준(오른쪽)과 고형욱(왼쪽) 키움 히어로즈

이기흥 IOC 위원 임기 연장 무산... 체육회장 3선 도전 '삐끗'

"한국 IOC위원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3선 도전 고집

내년 말까지만 NOC대표자격으로 IOC위원 신분 유지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임기 연장이 무산됐다.

IOC 집행위원회는 내년 3월 그리스에서 열리는 제144차 IOC 총회에 제출할 임기 연장 위원 명단을 확정해 5일(한국시간) 발표했다.

1999년 12월 이전에 선출된 IOC 위원은 80세, 그 이후에 선출된 위원은 70세가 정년이다.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뽑힌 이 회장은 임기

4년을 연장해주는 예외 규정 신청을 노렸다. 그러나 이번에 IOC가 발표한 임기 연장 후보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다.

임기 연장 후보는 리히텐슈타인의 노라 공주(1950년생), 세르비아 응(싱가포르:1949년생),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스페인:1959년생) 등 10명이다. 개인 자격 위원이 8명이며, 종목별 국제연맹(IF) 대표 자격 위원이 2명이다.

IOC 위원은 이 회장과 같은 NOC 자격,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1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체육인대회에서 이기흥(오른쪽)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헌액패와 증서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IF 자격, 개인 자격 위원으로 나뉜다.

1955년생인 이 회장은 내년 1월 치러지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IOC가 다음에 임기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NOC 대표 자격으로 유지했던 IOC 위원 지위를 지킬 수 있다.

이 회장은 체육계 안팎의 거센 반대에도 '한국인 IOC 위원 지위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체육회장 3선 도전을 강행했다. 하지만 이번에 IOC 임기 연장이 무산되면서 이 회장의 3선 도전 명분도 힘을 잃게 됐다.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평가 지표 중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과 계획 및 가능성을 포함한 정성 평가 항목에서 이 회장에 높은 점수를 줬다.

체육계에서는 이번 IOC 집행위원회 발표에서 개인 자격의 한국인 신규 위원 후보가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었으나 예상은 빗나갔다.

이 회장의 임기가 내년에 끝난다면, 2026년 이후 한국인 IOC 위원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 자격의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만 남는다.

한편 내년 3월 IOC 그리스 총회에서는 새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열린다.

2013년 9월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위원장에 선출됐던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내년 6월을 끝으로 퇴임한다.

RomaRo GRAND QUALITY

Confidence in the Short game.

Alcobaça ASA WEDGE LADY

www.romarogolf.co.kr